

**2022년 2월 27일 “성경의 큰 숲 보기(61)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
(유 3)**

저자 유다(예수님 동생, 마 13:55)는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입한 상황 속에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3 절). 그들은 거짓 가르침과 비도덕적 생활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이에 유다는 심판의 여러 사례를 들며 믿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유다서 구성 및 내용

1-4 절: 서론

5-19 절: 거짓 교사들에 대한 질책

20-25 절: 결론(권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근거로 왜곡시켰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벗어난 결과로서 심판 받을 것입니다(5-11 절).

- (1) 광야에서 반역한 이스라엘(출애굽기/민수기)
- (2) 반역한(타락한) 천사들의 결박(에녹 1 서)
- (3)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창 19 장)
- (4)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의 대화(모세 승천기)
- (5) 가인(창 4)과 발람(민 31:16)과 고라의 패역(민 16)

[2]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

유다서의 메시지를 줄이면, 하나님 자녀가 될 때 받은 믿음의 도(길)를 지킬 때 성도는 주님 영광 앞에 온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24 절). 이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은혜의 방식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겠다는 태도와 결단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보면,

- i. 세속적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기준을 앞세워 강령(must)과 금기(must not)로 삶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삶의 소중한 내적 가치를 놓치게 합니다. 종점은 공허와 허무입니다.
- ii.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극단적 낙천주의 또는 쾌락주의(hedonism)). 본성과 욕망에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래 본성과 욕망은 중립적인 것으로 삶을 움직이는 힘을 주지만, 채우는 데만 목적이 있으면 진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은혜에 의지하지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인가요?

은혜는 눈을 열어주어서 삶 속에 심겨진 소중한 생명의 원리와 가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삶에서 열매 맺도록 주님의 성품과 방식에 의지하게 합니다. 나는 무력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에 필요한 것은 전적 의탁과 순종으로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미 얻은 '단번에 받은 믿음'(3 절)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3] 믿음과 심판과 구원

심판 메시지를 읽다 보면, 성도라도 때로는 심판의 대상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유다가 심판의 사례들을 열거한 이유는 믿음의 도를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는 성도의 양심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처음 받은 믿음의 도를 회복하며 은혜에 의탁하라고 격려합니다.

이 믿음의 도를 따라 살면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나의 기준에 만족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혜의 눈 뜨기를 바라는 소망과 주님의 성품을 배워 살고 싶은(주님께 의탁하는) 열망이 나의 삶의 소중한 요소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결과(끝 지점)는 주님께서 매듭지어 주시도록 맡기며 참 평안을 구하고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유다는 믿음의 도를 지키도록 교회에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새 삶을 지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를 애쓰십시오”(20 절)

이 믿음의 길을 통해 흠이 없이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떤 생각과 행실의 변화가 내게 있었는지 말씀해 봅시다.
2. 유다서를 보면서 나의 믿음과 관련하여 도전 받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심판의 사례들을 읽을 때 나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된다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